

[2012년 8월 20일 오늘의 아침편지]

얼굴 풍경
顔の風景

사람의 얼굴은
人の顔は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遺伝的に生まれつきであるが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生きていく途中で、自身の性格なりに、自身のイメージなりに

변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 얼굴의 변천사를 봐도
かわっていくという事実を、私の顔の変遷を見ても

잘 알 수 있다. 마치 매일 가는 산도 봄, 여름, 가을,
よくわかる。まるで毎日行く山も、春夏秋

겨울이면 그 풍경이 바뀌듯 얼굴도 나이에 따라서
冬になれば、その風景が変わるように顔も年によって

그 풍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その風景が変わっているのだ。そんな意味から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이며 살아가는 현장이며
顔はその人の歴史であり、生きていく現状であり

그 사람의 풍경인 것이다.
その人の風景であるのだ

- 최인호의《산중일기》중에서 -
- チェ・イノの<山中日記>より -

* 얼굴 풍경에
* 顔の風景に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その人のすべてのことが詰まっています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형편은 어떤지,
昨日まで、どのように生きてきたのか、今日の情勢はどうなのか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한 눈에 드러납니다.
明日をどんな姿で生きていくかが、ひと目に現れます

그 사람의 얼굴 풍경이 곧 그의 인생 풍경입니다.
その人の顔の風景が、まさに人生の風景です

오로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며, 어느 누구도
ひとえに全面的に自身の分け前で、どの誰も

대신해서 풍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代わって、風景を変えることが出来ません

(2008년 6월 26일자 앙코르메일)
(2008年6月26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형편 [形便]

1. [명사] 事の成り行く有様や結果。
2. [명사] 暮らしむき; 形勢; 情勢。

유전-적 [遺傳的]

1. [관형사·명사] 遺傳的。

변:천 [變遷]

1. [명사·하다형 자동사] 變遷; 移り変わり; 變転。

산중 [山中]

1. [명사] 山中; 山の中; 山奥。[동의어] 산속

오:로지

1. [부사] ひとすら; もっぱら; 一途に; ただ; ひとえに。

오:로지

1. [부사] ひとすら; もっぱら; 一途に; ただ; ひとえに。

전:적 [戰跡]

1. [명사] 戰跡; 戦いのあつた跡。

몫

1. [명사] 分け前; 割り当て; 配当; 取りまえ; 取り分。
2. [명사] おのおのが受け持った任務; 持ち分。

[2012년 8월 21일 오늘의 아침편지]

그것은 사랑이다
それは愛だ

그리운 것이 있다면
懐かしいことがあるなら

그것은 외로움이다
それはさびしさ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会いたい人がいたなら

그것은 사랑이다
それは愛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憎む人がいたら

그것 또한 사랑이다
それもまた愛だ

그리운 것도, 보고 싶은 것도
懐かしいことも、会いたいことも

외로운 것도 없다면
さびしいことも無いなら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それは愛を知らない人だ

- 전기예의 시집《디아스포라의 황혼》에 실린 시
- ジョンキエの詩集<ディアスポラの黄昏>に掲載された詩

<사랑을 모르는 사람> 전문 -
<愛を知らない人> 前文 -

* 외로움도 사랑입니다.
* さびしさも愛です。

그리움도, 미움조차도 사랑입니다.
懐かしさも、憎しみさえも愛です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人がこの世の中に生まれて、亡くなるその瞬間まで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総てのことに愛があります。その事実を

모르고 살다가 다 지난 뒤에 비로소
分からず生きて、総て去った後によく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愛だったのを気づきます

오늘도 외로움과 그리움에
今日もさびしさと懐かしさで

당신을 사랑합니다.
あなたを愛します。

황혼 [黄昏]

1. [명사] 黄昏。
2. [명사] たそがれ; 夕暮れ。

diaspora

ディアスポラ

ディアスポラ($\delta \iota \alpha \sigma \pi \omicron \rho \acute{\alpha}$ 、英: Diaspora, diaspora、ヘブライ語: תולדות)とは、(植物の種などの)「撒き散らされたもの」という意味のギリシャ語に由来する言葉で、元の国家や民族の居住地を離れて暮らす国民や民族の集団ないしコミュニティ

[2012년 8월 22일 오늘의 아침편지]

깨달음
悟り

깨달음이란
悟りとは

생각을 딛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考えに踏み入れて、湧き出すことです

생각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동물이나 식물의
考えより低次元で、動物や、植物の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水準に帰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以前よりさらによく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集中的で、効果的な方式で使うことができます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중얼거림에서 벗어나
絶え間なくイメージは内面の独り言からはなれ

고요하고 평화롭게,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静かで、平和に、実際に目的のために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心を使うことができるだろう

- 에크하르트 톨레의《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중에서 -
- エックハルト・トール<今この瞬間を生きなさい>より -

* 깨달음에는
* 悟りには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2タイプの人があります

그 순간 바로 깨달는 사람이 있고,
その瞬間すぐに悟る人と

한참 시간이 지나 깨달는 사람이 있습니다.
ずっと時間が過ぎて気づく人があります

어느 경우든 소중한 것이지만 '때를 놓치고'
どちらの場合でも、大切なことだが'チャンスを逃して'

뒤늦게 얻은 깨달음은 후회를 남깁니다.
遅きに得る悟りは、後悔を残します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을
だから、まず悟りは人を

믿고 따르는 훈련도
信じて従う訓練も

필요합니다.
必要です

딛다

1. [타동사] 디디다의縮約形。

디디다

1. [타동사] 足を置く; 踏む。

2. [타동사] 到達する; 踏み入れる。

솟아-나다

1. [자동사] 湧き出る; 噴き出る。

ていじ [低次]

1. [명사] 저차. 낮은 차원. [반의어] 高次.

되-돌아가다

1. [자동사] 戻る; 引き返す; 戻って行く。

끊임없-이

1. [부사] 絶え間なく; ひっきりなしに; 続々と; 間断なく; 引きも切らず。

종얼-거리다

1. [자동사] 独り言を言う; (ぶつぶつと)つぶやく. [작은말] 종알거리다 [센말] 쯤얼거리다

고요

1. [명사] 静かなこと; 静けさ; 静寂。

2. [명사] 風力階級のゼロ級に当たる風。

유:형 [類型]

1. [명사] 類型。

2. [명사] 似ている型。

평화 [平和]

1. [명사·하다형 형용사·스럽다형 형용사] 平和。

한-참

1. [명사] むかし両駅間の距離。

2. [명사] はるかに; ずっと。

チャンスを逃さず

때를 놓치지 않고 → 때1

뒤:-늦다

1. [형용사] 遅い; 立ち遅れだ。

(Eckhart Tolle)

[2012년 8월 23일 오늘의 아침편지]

혼자 노는 법
一人で遊ぶ方法

참 수행자는 혼자 노는 법을 안다
真の修行者は一人を遊ぶ方法がわかる

오는 이 없고 가는 이 없어도
来る人無く、行く人が無くても

혼자 논다는 것은 매 순간
一人遊ぶということは、毎瞬間

존재의 느낌대로 순간을 사는 것
存在の感じのままに、瞬間を生きること

아무런 대상 없이 혼자 노는 사람은
なんら対象が無く、一人で遊ぶ人は

밤과 낮이 구분이 없고
夜と昼が区別無く

생과 사도 두려움이 없다
生と死も恐れも無く

아무런 경계 없이 혼자 노는 사람은
何の境界無く一人で遊ぶ人は

어디서든 스스로 충만할 줄 안다
どこでも自ら充滿することが出来る

- 허허당의《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중에서 -
- ホホダンの<留まるな、その痛い傷に>より -

* '혼자 노는 법'은
* '一人で遊ぶ方法'は

'혼자 있는 법'과 통합합니다.
'一人でいる方法'と通じます

혼자 있는 법을 알아야 혼자 노는 법도
一人でいる方法を分かって、一人で遊ぶ方法も

배울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 그리고
学ぶことが出来ます。文章を書いて、絵を描いて

작곡하고 연주하는 그 모든 예술적 창조적 작업은
作曲して、演奏して、その総ての芸術的創造的作業は

혼자 노는 법에서 완성됩니다. 좋은 리더도
一人で遊ぶ方法から完成します。いいリーダーも

'혼자 있는 법'을 터득해야 가능합니다.
'一人でいる方法'を体得して可能です

만델라도 오랜 시간 옥중에서 혼자
マンデラも長い時間獄中で一人で

있는 법을 알았기에 세계적인
いる方法を分かって、世界的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指導者になることができました。

놀:다1

1. [자동사] 遊ぶ; 戯れる。
2. [자동사] 遊ぶ; 失業する; ぶらぶらする。

수행-자 [修行者]

1. [명사] 『불교』修行者。

충만 [充滿]

1. [명사·하다형 형용사] 充滿。

터:득 [攄得]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會得; 体得。

2012년 8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

열한번째 도끼질
11回目の斧仕事

처음 10번의 도끼질을 할 때는
初めて10回の斧仕事をするときは

매번이 힘들고, 10번을 다 했음에도
毎回つらくて、10回を全部したときにも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倒れない木が恨めしくも思った

그러던 어느 날, 그 큰 아름드리나무는
そんなある日、その大きな木は

홀러덩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껏 도끼질을
すっかり倒れる。そうならば、今まで斧仕事を

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したという事実を、すっかり忘れたまま

누군가 “어떻게 저 큰 아름드리나무를
だれかが”どうやってあの大きな木を

넘어뜨렸나요?”라고 묻기라도 하면,
倒したのですか?”と聞いても

“운이 좋았어요!”라고 대답하게
“運がよかったです!”とこたえるように

될지도 모른다.
なるかもしれない

- 이소연의《열한번째 도끼질》중에서 -
- イ・ソヨンの〈11回目の斧仕事〉より -

* 그렇습니다.
* そうです

아름드리나무를 넘어뜨린 것은
大きな木を倒したことは

운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運ではなく、骨折る努力の結果です

11번째, 12번째 도끼질을 했기 때문에
11回目、12回目の斧仕事をしたから

행운이 선물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幸運が贈り物のように近づいたのでしょう

우주인 이소연 박사도 계속해서
宇宙飛行士イ・ソヨン博士も続けて

수없이 도끼질을 했기 때문에
たくさんの斧仕事をしてきたから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我が国最初の宇宙飛行士に

될 수 있었습니다.
なることができました。

도:끼-질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斧仕事。

아름-드리

1. [명사] ひと抱えに余る木や物体。

홀러덩

[부사]

1. ‘홀렁(1. 속의 것이 시원스럽게 드러나도록 완전히 벗어지거나 뒤집히는 모양)’의 본말.

2. ‘홀렁(2. 가지고 있던 돈이나 재산 따위를 다 날려 버리는 모양)’의 본말.

3. ‘홀렁(4. 아주 쉽게 뛰어넘거나 들어 올리는 모양)’의 본말.

유의어 : 홀라당, 홀렁

넘어-가다

1. [자동사·타동사] 倒れる。

2. [자동사·타동사] 過ぎていく; 経過する。

이제-껏

1. [부사] 今まで; 今に至るまで。 [동의어] 여태까지

새-까말다

1. [형용사·ㅎ 불규칙활용] 真っ黒だ。

2. [형용사·ㅎ 불규칙활용] 全く知らない; 暗い; うとい。

2012년 8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박영미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パク・ヨン미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힘써야 할 세가지 일
力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3つのこと

몸을 움직이는 것,
体を動かすこと

말을 하는 것,
話をする事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顔色を正しくすること

이 세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この3つが学問するときにあつて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一番優先的に心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

- 정약용의《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중에서 -
- チョン・ヤギョンの〈流刑地から送った手紙〉より -

* 사람은 이것저것을 배우며 살지만
* 人はあれこれ学びながら生きるが

모두가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みなが学んだことを、すべて実践してはいません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쓰고, 좋지 않은 일에
間違つた行動をして、悪い言葉を使って、よくないことに

흘리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魅入ることは、我々が学んだことをちゃんと使ってなくて

엉뚱한 곳에 마음을 기울여서이지 않을까 하는
とんでもないところに心を傾けていないかと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배운 것과
思っています。今日もう一度、私が学んだことと

나의 마음가짐을 고민해 봅니다.
私の心得を悩んでみます

힘-쓰다

1. [타동사] 尽力する; 力をつくす; 精出す。
2. [타동사] 助ける; 手助けする; 力添えをする。

얼굴-빛

1. [명사] 顔色; 血色。

はい-しょ [配所]

1. [명사] 배소. 유배지(流配地). 적소(謫所).

엉뚱-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分に過ぎる; 身のほど知らずだ。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推測や考えとは全然ちがう; とんでもない; 突拍子もない。